



양현종

도전 잔류 양현종의 선택은?

KIA 스토브리그

**최형우·브룩스 등 핵심 멤버 재계약
멘덴 영입...외국인 선수 구성 완료
양현종 재계약 여부 '마지막 퍼즐'
해의 진출 두번째 도전 관심 집중**

KIA는 2020시즌에 합격점을 주었던 터커와도 지난 9일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보류' 카드였던 가논을 대신해 다니엘 멘덴도 영입,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이미 KBO리그에서 검증된 브룩스와 터커에 빅리그 경험을 갖춘 멘덴을 더한 KIA의 '외국인 선수'는 어느 구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 KIA는 계약 마지막 해 '타격왕'으로 화룡점정을 찍은 최형우도 지난 14일 3년 최대 47억에 FA 재계약을 끝냈다. KIA는 예상보다 일찍 주력 선수들의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예상대로 양현종이라는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다. 포스팅으로 빅리그 문을 두드렸던 키움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행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양현종은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동갑내기 라이벌' 김광현(세인트루이스)의 깜짝 활약으로 양현종의 해의 진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처음 FA 자격을 얻었던 2016년 해의 진출을 타진했다가 유턴했던 양현종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도전을 이야기해왔다. 양현종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해의 진출에 대한 강한 의사를 밝혔다. 시즌 마지막 등판도 홈경기에 맞춰 준비했고, 이 등판이 마무리된 뒤에는 선수단과 '작별 세리머니'까지 하면서 해의 진출에 대한 특별한 도전 의사를 보여줬다. 하지만 올 시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양현종은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 메이저 보장을 조건으로 껴안던 양현종이 진짜 꿈을 위해 일단 '도전'에 나설지,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선택하게 될지 팬들의 눈길이 KIA의 '스토브리그 빅' 마지막 카드에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프로야구선수협 "허민 의장 제재 환영"

'야구놀이' 논란... 일구회도 '키움 정상화'에 한목소리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양의지)와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일구회(회장 윤동균)가 키움 히어로즈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선수협과 일구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KBO가 키움 허민 의장에게 직무 정지 2개월 제재를 부과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지난해 6월 키움 퓨처스 선수들을 타석에 세우고 공을 던지는 등 '야구놀이'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에는 키움이 투구 영상을 촬영한 팬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KBO는 이와 관련해 22일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사법 기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제재를 심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운찬 총재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KBO는 28일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 의장에게 직무 정지 2개월 제재를 부과했다.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내렸다. 키움은 구단과 단장에 대한 KBO 징계를 수용한다면 허민 의장에 대한 제재를 놓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키움은 "사찰 여부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마려되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사회 의장의 투구 등 행위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허민 의장의 태도는 리그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며 리그 퇴출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피해자인 키움 선수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허민 의장의 태도와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키움 구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일구회는 "키움, 혹은 허민 의장이 실제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구회는 물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이 KBO와 함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며 "소송전은 곧 야구계와 팬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시는 KBO리그를 '야구놀이'로 삼지 않기를 키움과 허민 의장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 K리그 후원사 경제효과 1726억원

프로축구연맹 분석... 지난해보다 14.5% 증가

2020시즌 K리그 후원사 미디어 노출 효과가 1726억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미디어 분석 전문 업체인 티엘오지에 의뢰해 '하나원큐 K리그2020' 299경기(K리그1 162경기+K리그2 137경기)를 대상으로 후원사의 미디어 노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폰서십의 경제적 효과가 1726억 757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시즌 평가된 1508억원 보다 약 14.5%가 증가한 수치다. 올 시즌 5월 8일 뒤늦게 개막전을 치르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수가 줄었지만, 노출효과가 증가했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연맹은 노출효과가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을 국내 TV중계 횟수 증가로 꼽았다. 올해 K리그 국내 TV중계는 재방송 포

함 총 778회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97회 증가했다. 또한 올 시즌 K리그는 총 43개국 25개 플랫폼을 통해 396회 해외 중계 송출도 이뤄졌다. 이번 스폰서십 효과분석은 TV·신문 등 전통미디어와 온라인 포털사이트·SNS 등 뉴미디어, 경기장 현장 광고 등을 통한 브랜드 노출을 다각도로 분석해 이뤄졌다. 매체별로는 TV 생중계를 통한 스폰서십 노출이 약 932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TV 뉴스를 통한 노출은 약 405억원, TV 중계 재방송 및 하이라이트를 통한 노출은 약 268억원, 뉴미디어 생중계 및 영상클립을 통한 노출은 약 74억원, 신문·잡지 등 인쇄 매체를 통한 노출이 약 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질척대지 말라말이야" 레스터시티의 남팰리스 멘디(왼쪽)와 크리스탈팰리스의 자이로 리데발트가 29일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 미국리그로 간다고?

BBC 인터뷰... "타 리그 경험하고 싶어"

리오넬 메시(33)와 FC바르셀로나의 불편한 동거가 끝나가고 있다. 영국 방송 BBC는 메시가 스페인 방송 '라섹스타'와 인터뷰에서 올 시즌 뒤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29일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메시는 "아직 뭘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미국에서 뛰면서 그곳의 삶과 리그를 경험하고 싶고, 나중에는 뭘 여력이 있을 때

바르셀로나로 돌아오고픈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메시는 열 세 살부터 20년 넘게 즐긴 바르셀로나에서 단 뛰었다. 2004-2005시즌 데뷔 이래 17시즌째 뛰며 무려 644골을 넣었고 정규리그 10회, 국왕컵 6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회 등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편하지 않다. 그는 올해 계약 기간을 1년 남기고 구단과 결별을 선언했으나, 계약상 일방 해지 옵션과 최소 이적료 조항 등을 두고 구단과 맞서다 결국 계약 기간인 2021년 6월 30

일까지 팀에 남기로 했다. 여기에 사이가 안 좋은 주제프 바르토메우 회장이 지난 10월 사임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메시의 마음은 바르셀로나를 이미 떠난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바르토메우 시절은 참사였다"면서 "클럽이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내부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전했다. 메시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1월부터 해외 구단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등 부자 구단들이 그의 차기 행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메시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트로피를 따는 것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